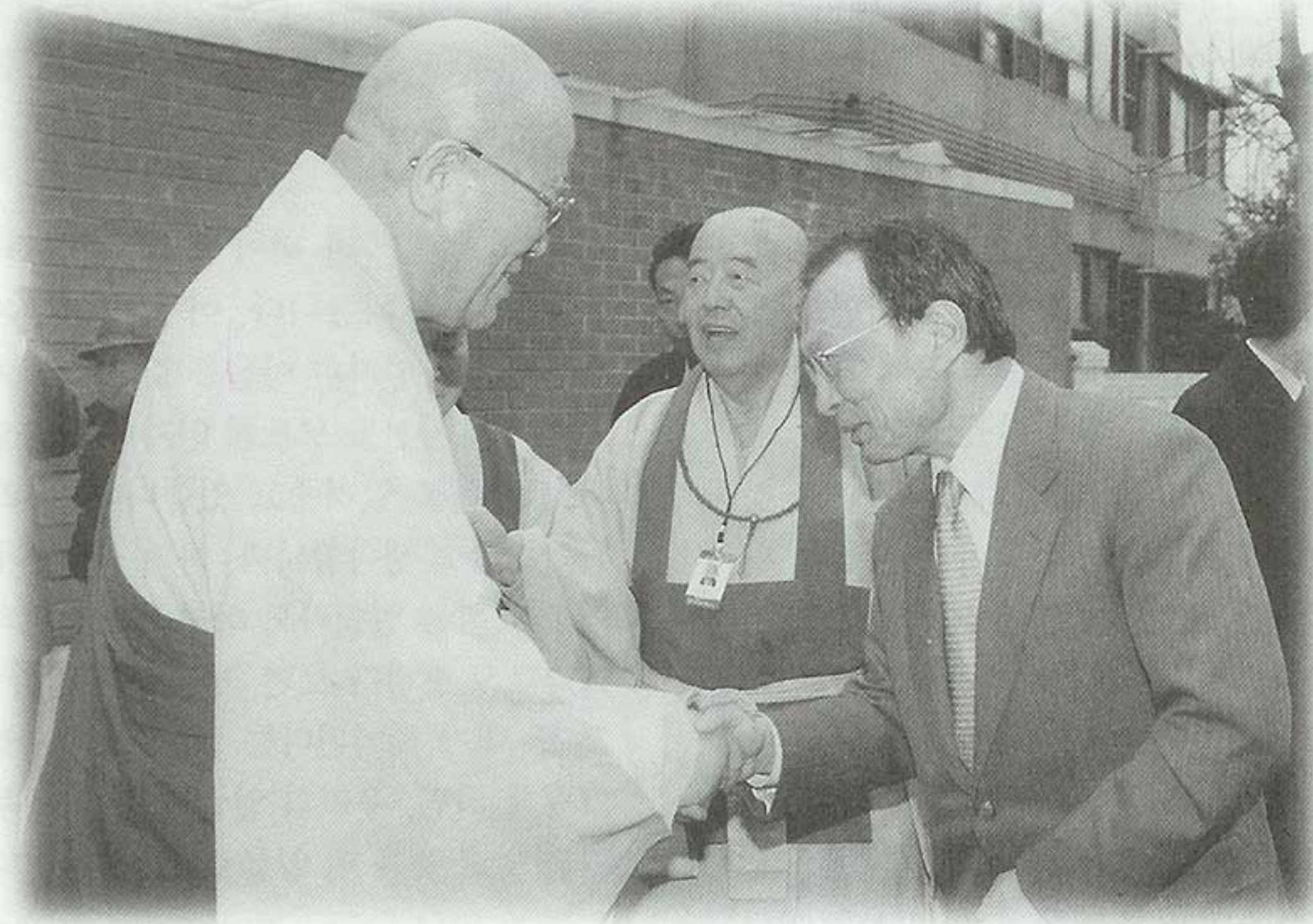


# 보살의 길

2005년 봄호 제21호



05. 2. 7. 이해찬 국무총리 혜명복지원방문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 사랑의 마음



채 명 석 (생활지도원)

**입**사 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처음 입사할 때는 그저 어르신을 케어한다는 것이 “크게 뭐 어려운거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짧고 어리석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함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과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그 분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 분의 살아온 세월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어르신의 얼굴만 보아도 살아온 세월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침에 문안인사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그 분의 오늘 컨디션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로원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던 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얼굴이 험악하고 성격이 삐뚤어진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남자는 자신의 외모와 성격은 생각하지 않고 아름답고 순결한 아가씨에게서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가씨에게서 “당신같이 험하게 생긴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다”라는 말로 거절을 당하자, 이남자는 인자하게 생긴 가면을 쓰고 인자한 모습에 맞게 행동을 하면서 다시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던 어느날, 그의 집에 한사람이 찾아와 남편의 과거와 가면 에 대해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당장 남편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러나 가면 속에는 험악한 얼굴이 아닌 인자한 모습으로 변한 얼굴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막비 비어 봄의 <행복한 위선자> 라는 소설에 나옵니다. 아무리 얼굴이 험악한 사람이라도 인자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자신도 모르게 인자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이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기 싫고, 어렵고, 남이 꺼려하는 일이라도 하루하루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할 일 같고 또 내가 해야된다는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얼굴은 항상 행복을 찾아가는 밝고 웃음 띤 얼굴로 변할 것 입니다.

벌써 2005년의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 만큼 허전함과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한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를 다시 시작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했던 일 이루시길 바라며, 헤명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앞날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 양로원 실습을

## 마치며...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양로원 선생님들께 페나 끼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긴장을 많이도 했었다. 그러나 양로원 선생님들이 실습생인 나에게 따뜻하게 배려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어서 긴장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루하루 실습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힘든 현실을 몸소 느끼면서 가슴 아팠고 현재의 나로서는 CT를 위해서나 어려운 사회복지 현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에 속이 상할 뿐이었다.

그리고 짧았던 실습기간이었지만 나에게겐 너무나 소중한 것,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습이었다.

실습 둘째 날부터 웃놀이프로그램 기획과제가 나왔고 열심히 해보려고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인터넷을 뒤적이던 기억도 난다. 하지만 열심히 해도 언제나 부족했기에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해야만 했고 완성된 웃놀이프로그램 기획서를 보면서 '고생 끝에 낙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들의 자기 분야에서의 철저함과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에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입소자 상담 진행시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에 당황하기도 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돌아왔다.

부족한 실습생들을 위해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생활지도원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특히 수퍼바이저 김정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김재성(실습생)



## 새봄을 맞은

# 혜명양로원

이 승 희 (미술지도)

**환** 한 햇살이 커튼사이로 눈부시게 한다.

커다란 창문에는 하이얀 목련의 꽃봉우리가 봄의 전령사인 양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혜명양로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림지도를 한 지도 어언 10년이 넘어온다.

유독 혜명양로원에서 오랫동안 그림지도를 해온 까닭은 '새 봄을 맞은 혜명양로원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우한 청춘을 넘기고 노년을 편안히 보내기엔 너무 좋은 시설' 이라 믿어서다.

상냥하고 예쁜 선생님들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여, 다른 유료 복지시설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의 행복에서도 큰 힘을 얻었다. 언제나 외출이 자유로워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자유롭게 외출하면서 활동하시는 모습도 참 행복해 보였다.

햇살이 따사로운 날 인생의 반 페이지를 접은 저 자신도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시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그림을 가르쳐주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서로 끌어안고 비벼 주기도 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라" 고 기원한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그누가 말했던가?

마음이 예쁘게 늙어가는 까닭도 봉사를 함으로써 스스로 행복을 느끼므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항상 밝은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밝은 얼굴도 나 자신이 만드는 것!

조그만 사랑도 나눔으로써 행복해지고 내 삶이 더 아름답다워지는 것 같다.

"교육중에서 가장 큰 교육이 자원봉사 교육" 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혜명양로원의 할머니 할아버지께 아주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사랑을 담아 함께 봉사를 시작합시다.



# 혜명훈파당



| 종이접기 |

매주 목요일 오전은 김미경(자원봉사)가 3년째 종이접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른신들이 처음엔 종이접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니 요즘은 강사가 “대문접기, 아이스크림접기 하세요.” 하시면 척척 따라 접으신다. 대단한 우리 어른신들이십니다.



| 만두만들기 |

설을 맞아 양로원 어른신들이 만두를 만드셨습니다. 얇전하게 앉아 만두를 빚는 모습은 영낙없는 새색시입니다. 예전에 만두 만들어 드시던 시절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즐겁게 만든 만두는 맛도 기가 막혔습니다.



| 전국학부모연합회 |

전국학부모연합회에서 양로원을 방문하여 생필품과 어른들 한 분당 5,000원씩 용돈을 나눠주셨습니다.



| 이야기 시간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이쁜 김도연 선생님의 이야기 시간이 있습니다. 어른들과 교훈적인 이야기와 덕담을 서로 주고 받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어른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하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김도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 즐거운 민화투시간 |

어른들이 째째이 하시는 민화투. 늘 삼삼오오 앉아 진지한 얼굴로 화투를 바라보는 어른들을 보면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진지해 보인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민화투로 대회를 한번 열어야겠다. 는 생각을 해봅니다.



| 05.2.7 이해찬 국무총리 해명복지원 방문 |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해명복지원을 방문하여 사업시찰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 척사대회 |

대보름을 맞아 윷놀이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우승을 했으나 이번에 할아버지가 우승을 가져가 나란히 1:1의 결과를 빚었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이번엔 할아버지가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의 넉넉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대보름 같이 올 한해 모두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 라이언스안과 후원금 전달 |

라이언스 안과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 529,5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어른들이 생활하시는 데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 생신잔치 |

2월 생신 맞은 분을 위해 생신잔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초를 끄시는 어른들의 모습이 익살스럽습니다. 모두 만수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 혜명동경

## ◎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여:32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 ◎ 입소대상

### ■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소신청 :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 양로원(상담 및 입소 결정)

### ■ 실비입소

- 입소대상 : 중산층 이하 가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어르신 (20%)  
 입소비용 : 보증금 : 5,056,590원  
 월생활비 : 333,000원

## ◎ 현재 입소인원

- 총 61명
- 할아버지 : 25명
- 할머니 : 36(3)명
- 희망의 집(노숙인 쉼터) : 52명
- ※( )는 실비입소자입니다.

## ◎ 직원 현황

- 총 16명
- 원장1명 / 사무국장 1명 / 간호사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4명

## 2004년 하반기 후원금 수입·지출내출 (2004년 7월~12월)

수입		지출	
후원금 종류	금액	지출내역	금액
지역사회 후원금품	20,457,903	제수당	924,640
		수용비 및수수료	510,050
		공공요금	364,344
		차량비	176,330
		기타 운영비	970,000
		자산 취득비	2,980,000
		생계비	9,154,170
		수용기관 경비	462,800
		의료비	227,190
		장의비	13,410
		특별 급식비	491,500
		연료비	164,980
		프로그램 사업비	166,500
합계	20,457,903	합계	16,605,914

가·원·홍·사·가

2004년 12월 21일 ~ 2005년 3월 31일

f.g.t.g.(단체봉사팀),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미술교실), 문덕녀(대림미용실), 안양교도소이발, 영등포교도소이발, 문일고, 동일고, 금천고, 동일여고. 시흥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김미경(종이접기), 금천보건소, 불자연수지침팀(이정조·김명숙·송안순·박경희), 윤순재(사랑의 모임 국악팀), 라이언스안과, 동일여상, 이현교외 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대한적십자 회원들, 소하고등학교, 황은영 음악치료, 건강제조(최순남·서현정), 백산초등학교 6-5반, 문백엔젤스, 한국야쿠르트, 백련사 신도님들, 씨네티아정보통신, 박성은(미술활동), 천종임(민요), 금천문화원무용반

후·원·가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도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물품후원

구의회. 보리심보살. 김광태이사장. 보라매법당. 서서울고등학교. 금천푸드뱅크. 대영정공. 약사회. 성원암. 동일학교. 성산식품. 남부경찰서. 213부대. 셋별어린이집. 금천우체국. 씨네티아. 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 김주숙. 한독병원방. 사랑의 실천국민운동. 던킨도너츠. 해명보육원. 인천보살님. 봉원사. skc&c. 국방부. 이묘희. 이종림. 현대체육. 아이유푸드(배춘자). 이귀자. 보명사. 은행나무떡집. 백련사. 현성정사. 이택종. 제주한림수산시장. 김동성. 서서울고등학교 가족봉사단. 김종석친척. 김성언친척. 도정아. 현성큰스님. KBS아나운서실. 독지가. 한국상호저축은행. 한순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방일초등학교. 현대시장. 천종임. 해명보육원. 명성여고. 금천구의회. 시흥서울우유. 남영록. 김영근. 오시윤. 정토사. 견성암. 서서울고등학교. f.g.t.g. 난곡중졸업생 진경희. 김동성.

지로후원

조관우 20,000	윤재순 90,000	독지가 30,000	연홍구 30,000	이보일 50,000	명법사 60,000
임옥수 300,000	구총수 300,000	구희관 30,000	서현종 40,000	민병천 40,000	구봉순 30,000
석혜영 20,000	이애자 20,000	문금자 30,000	김상범 20,000	이종림 30,000	안정희 30,000
백승풍 30,000	이재임 3,000	장영애 30,000	이정호 5,000	박영옥 3,600	한진택 100,000
김동섭 200,000	안희숙 5,000	김기영 300,000	김연숙 20,000	한독병원120,000	

현금후원

이은희 200,000	아이언스안과 529,500	김주현 90,000	국영호 600,000	박성수 60,000
한태규 150,000	아이유푸드 100,000	권기상 150,000	임경자 90,000	대림라이언스 90,000
고영빈 30,000	황재기 30,000	배승진 30,000	박정진 30,000	김은인 30,000
박두영 150,000	구수미 150,000	박혜정 30,000	강용호 200,000	김수 1,000,000
이송노 100,000	이태호 1,000,000	김성원 500,000	윤중영 30,000	유재호 50,000
김달중 50,000	전재동 50,000	이승호 50,000	이응삼 50,000	황동주 50,000
이태형 50,000	이병식 50,000	박성수 30,000	공무원연수원 300,000	
한국까르푸 165,840	영등포교도소 300,000	김지원스님 300,000	건강보험금천지사 110,000	
서울공동모금회 800,000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50,000	증권선물거래소 900,000		

# 따 · 뚝 · 한 · 손 · 길 · 을 · 기 · 다 · 림 · 니 · 다

## 자원봉사자모집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 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 · 여가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 후원자모집

- ▶ 후원내용 : 현금 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 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 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 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카메라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류

지로번호 : 7655940

지로계좌(우리은행) : 711-046904-13-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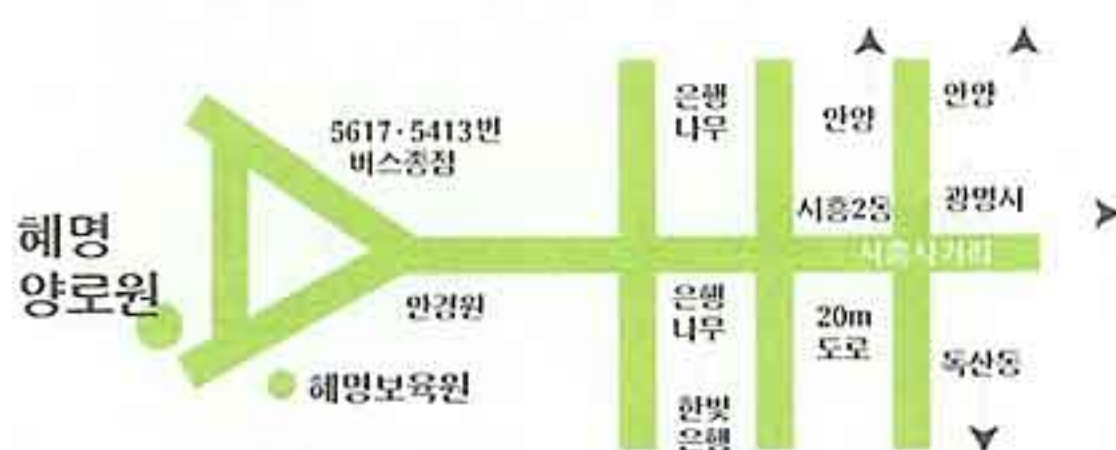
우리은행 : 145 - 05 - 095018

예금주 : **혜명복지원**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 마을버스 금천01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공단역 5617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www.hmtown.or.kr](http://www.hmtown.or.kr)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재근(연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